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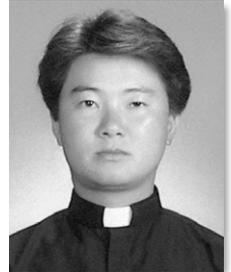
# 대구주보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2011. 7. 3.(가혜) | 제735호 |

주일의말씀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김용범 그레고리오 신부  
황점유적지 개발담당/무학연수원장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들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 그 의향이 어디 있었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일을 생각하여 보면, 실로 허무한 것뿐이고 슬픈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거칠고 허무한 세상에 있어서 자기의 조물주이며 다시없는 천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난 보람이 있고, 살아 있는 보람이 있으리오. 오직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써 이 세상에 나고, 다시 큰 은혜로써 성세를 받고, 성 교회의 한 사람으로 되어 귀한 이름을 받들고 있는 것이나, 이에 어울릴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름이 무슨 쓸 데가 있으리오. 다만 입교한 보람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의미를 추구하고 완성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일구어 내지 못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하찮은 존재로 끝나고 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많은 순교자들의 삶은 우리네 인생, 나아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묵상해 보도록 이끕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심, 기회주의와 힘의 지배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내리 누르며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인들 중 많은 이는 더 가지기 위해 속이고, 더 힘 있는 자 편에 서기도 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일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남이 보지 않으면 불의도 행하거나 눈감아 버리기도 하고 남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사는데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사는 이가 이미 우리 신앙인 안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학연수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다녀가는 많은 신앙인들 중 다수가 이미 이런 삶에 젖어 있음을 보면서 선조신앙인들에게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많은 신앙인들이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고 살고 있고, 남을 배려함을 사치로 여기는 이가 많아지고 있으며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http://cafe.daum.net/jeonhwassoo/Ra9e/3> 글 참조). “무엇을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가?”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다시 생각토록 우리를 초대 하십니다.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할지이다.”

생명의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11:29 참조)  
제1독서 : 즈카9,9-10 제2독서 : 로마8,9,11-13 복음 : 마태11,25-30



## “천국에 가 만나자!”

문화홍보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입니다. 신부님은 1925년 7월 5일 북자위에 오르셨으며, 1984년 5월 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시성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축일은 본래 7월 5일이지만 교우들이 많이 참례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1821년 치명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김 신부님은 모방 신부님에게 발탁되어 16세 되던 해에 중국 마카오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1845년 당시 조선 교구장이던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은 신부님은 사제 영입을 위해 활약하셨으며, 겨우 두 달 남짓 사목하시다가 1846년 6월 관헌에게 체포되어 3개월간 40차례의 문초를 받으시고, 같은 해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 형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순교 당시 신부님의 연차는 26세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쓰신 편지를 보면 “천국에 가 만나자.”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신부님처럼 뛰어난 분이 스물여섯의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두고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까워 할 지도 모릅니다. 한국인 최초로 서양 학문을 배워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하고 재능이 출중한 신부님을 두고 당시 현종 임금과 대신들도 사형을 면하게 하려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교우들도, 신부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좀 더 오래 사셔서 사목을 하셨더라면 우리나라 교회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무엇인가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것, 제일 아깝고 귀한 것을 바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님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또 우리가 거룩한 신부님들을 모실 자격을 얻도록 주님 제단에 마땅한 희생을 바칠 줄 알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그릇된 희망은 버리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입당성가

287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화답송

◎ 저의 임금 하느님,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332 봉헌

영성체송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파견성가

300 사제의 마음

영성의 향기

:: 첫째가 되려는 이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완벽한 지도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주교님들, 신부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형제들을 이끌어야 하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지도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형제들이 우리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그들에게 따지기 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기도로써 도와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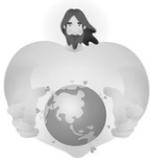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섬을 해 드려야 하는 이들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히브 13,17) 봉사자들에게는 우리의 기도와 고무와 감사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을 취하신 주님을 본받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섬을 해 바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집을 저 주십시오.”(갈라 6,2) 복음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씹니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하는 종목 중 하나는 사격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 선수들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폐활량을 늘리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총구를 흔들리게 하는데, 총구가 천분의 일 밀리미터 움직이면 점수를 1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기 전 12시간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내장의 움직임조차 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은 올림픽의 금메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씹니까?

- 윤택은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떼제기도회

일시: 7.9(토) 20:00, 삼덕젊은이성당

성소 / 피정

곶벚나무 프란치스코회 학생성소피정

일시: 7.22(금) ~ 23(토)

장소: 강화 성 유대철 베드로 수도원

대상: 중1~고3 남학생, 접수마감: 7.15(금)

문의: 이진훈 요셉 수사, (010)5064-6467

www.ofmconv.or.kr

제32차 수도생활체험학교

일시: 8.12(금) ~ 15(월)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이상-만32세이하 미혼 남녀

문의: (054)970-2000 / (010)8353-2323

작은형제회 성소캠프

일반: 7.22(금)~24(일), 20세~33세 남녀

중·고등부: 7.25(월)~27(수), 참가비: 4만원

주제: 목마르다,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조수만 신부, (010)9890-8809

제주 성이시들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일시: 8.17~20(수-토)/9.2-5(금-월), 18-21(일-수)

9.26-29(월~목)/10.1-4(토~화), 9-12(일~수)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문의: 성이시들 피정센터, (02)773-1455

교육 / 모집

시편성가연구집정선수회, 발성법(박재현)회비1만원

일시: 7.3(일)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대구대교구 유아교육자 사도직 협의회 재결성

일시: 1대리구-7.8(금)17:00, 남산성모유치원

3대리구-7.9(토)10:00, 상인소화어린이집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신도교사는 누구나

근무지기준으로 소속모임에 참여 바랍니다.

2, 4, 5대리구는 재결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양업고등학교 대안교육 연수회

일시: 7.23(토) ~ 24(일) 1박 2일

장소: 다목적실(토마스관)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학부모

문의: (043)260-5076 (http://www.yangeob.hs.kr)

※2012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 안내도 함께 합니다.

제10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2차 8.28(일) 출발 (8주, 12주)

3차 9.28(수) 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어르신을 내 가족같이 모십니다.

대상: 장기요양 1, 2등급 어르신

3등급(시설급여) 어르신

문의: 성가요양원, (054)976-8122 (www.sug.or.kr)

몽골 선교지 방문단 모집

기간: 8.8(월) ~ 12(금)

문의: 몽골선교후원회, (042)256-4111

직원 채용

가톨릭문화관 오후시간 아르바이트 모집

감시, 단속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주말 근무 시간은 다릅니다.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문용호(마르코), 박삼숙, 김동신, 성민경(요한나)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7월 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시각 및 미사	7월 4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집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4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7월 후원자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7월 6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 강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4일(월) 오전 11시	봉곡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7월 7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4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리스 교육관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라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밝은 눈 안과**  
원 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전문의 당일수술·퇴원 초음파맥내장·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약박사/전문의를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 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 **745-6633~4**

**우리다원 & 우리웃**  
우리나라 수시남에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  
관리 및 감독하여 식약청 허가를 받은 보이차!  
전통차, 자연염색부류, 우리한복 다기 및 다도구  
수정다례원 원장 정수자(엘리사벳)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768-3(희망로)  
**010-3510-2184**

허리아프고~ 다리아플때  
척추 관절을 치료하는 ~  
**참조은병원**  
척추 관절을 위한 13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에 多 모였습니다.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효(요한)  
T.630-8000 송현역2번 출구

**사람이중다 삼수가중다**  
대표 장영진 미카엘  
수성점 745-7800 두산점 781-3300